

# 각막 두께·근시 정도 따라 적절한 시술 선택해야



## 건강 바로 알기 스마일 수술

김재봉

광주 신세계안과 원장

대학생 함모(23)씨는 여름방학을 이용해 시력교정을 받을 계획이다. 몇 년간 안경과 마스크를 동시에 착용하게 돼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함씨는 "분명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올여름은 마스크 벗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무더운 날씨에 마스크와 안경을 함께 써야 하는 상황에 수술을 결심했다"라며 "요즘 스마일수술은 다음날이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해서 수술 이후의 삶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2013년 광주·전남지역에서 최초로 스마일수술을 도입한 후 최근까지 5만례 이상을 집도한 광주 신세계안과 김재봉 대표원장으로부터 시력교정수술의 특징에 대해 들어보자.

△내 눈에 맞는 시력교정술은 =시력교정술은 각막의 두께와 근시의 정도에 따라 시술법이 달라진다. 각막이 두꺼운 경우는 라식수술을, 각막이 얇은

라식·라섹 장점만 결합한 수술 빠른 회복력에 수술다음날부터 근거리 작업·가벼운 운동 가능 초고도근시 환자에게 최적 대안

면 라섹 수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식과 라섹 수술이 모두 가능하다면 직업과 수술 후 휴식기간을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라식과 라섹수술이 모두 어려운 초고도근시일 때는 스마일 수술이나 렌즈삽입술이 대안이며 건조증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빠른 일상생활 복귀가 필요할 때는 스마일 수술이 적절하다.

일반적으로 라식수술은 각막 절편을 생성한 후 각막실질에 레이저를 조사해 시력 교정이 이뤄진다. 그러나 각막절편을 만드는 과정에서 각막에 분포하는 신경이 같이 절단되어 손상되게 된다. 신경이 손상되면 눈물의 기능이 떨어져 안구건조증, 빛 번짐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또 라섹은 각막상피를 제거 후에 각막표면에 레이저를 조사하므로 각막표면에 상당한 자극을 준 다. 각막표면은 외부자극에 대한 세포 반응이 활발



해 라섹 수술시 레이저의 자극은 각막에 심한 조직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그 결과 각막이 뿌옇게 돼 시야가 흐려지는 각막혼탁이 생길 수 있다.

렌즈삽입술의 경우 시력을 교정하기 위해 눈 안에 렌즈를 넣는 수술이다. 라식과 라섹 수술이 하기 힘든 -9디옵터 이상의 초고도근시나 각막이 너무 얇은 경우에 렌즈삽입술을 통해 시력을 교정하지만 다소 비싼 가격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라식·라섹 장점만 뽑은 스마일, 초고도근시 환자에게도 적합 =스마일 수술은 이 모든 수술 방법의 장점만을 결합한 수술 방법이다. 스마일 수술의 대표적인 장점은 빠른 회복력이다. 기존 라식은 약 20mm이상 각막을 절개해 시력을 교정하는 반면, 스마일 수술은 90% 감소한 약 1~2mm의 최소 절개만

으로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며 건조증 발생 가능성도 적다. 또 각막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레이저로 각막을 1~2mm만 절개해 각막 실질부만 제거함으로써 시력을 회복하도록 도와준다. 각막 절개 부위가 적어 안구건조증이나 빛 번짐 등 부작용 발생 확률을 줄일 수 있다.

수술 다음 날부터 근거리 작업은 물론 가벼운 운동과 화장도 가능하다. 또한 각막 뿌옇게 만들지 않아 라섹과 동일하게 외부 충격에 강하며, 신경 손상이 거의 없어 수술 후 안구건조증 등 부작용 발생률도 낮다. 스마일수술은 여름 휴가를 앞두고나 일정상 빠른 회복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으며, 부작용 발생 확률은 낮추고 통증도 거의 없는 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

시력이 매우 좋지 않거나 각막이 얇아 라식·라섹이 아닌 렌즈삽입술만 가능했던 초고도근시 환자들에게 스마일 수술은 최적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초고도근시인 12.5디옵터(근시·난시 합도수)까지 시력교정이 가능해 고가의 렌즈삽입술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근시가 심할 경우 꺾어야 하는 각막의 양이 많아 각막이 눈 내부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각막이 돌출되는 각막확장증의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스마일 수술은 각막 손상 없이 각막 실질을 추출하는 원리를 사용해 초고도근시나 각막이 얇은

사람도 시력을 교정 받을 수 있다.

이로써 초고도 근시를 갖고 있어 라식·라섹을 할 수 없고, 렌즈삽입술만 가능했던 환자들이 렌즈삽입술보다 안전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고도근시부터 초고도 근시까지 효과적으로 교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호남 최초 스마일 50000례 인증 =신세계안과는 2013년에 호남 최초로 스마일수술을 도입 후 다양한 수술 케이스를 축적해왔다. 이러한 스마일수술 분야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16년 칼자이 스사에서 'Best Skilled Surgeon in SMILE' 상을 받았으며, 전국 최초로 독일 칼자이 스사에서 'LEADING SMILE CENTER'로 선정됐다.

특히 최근에는 호남 최초로 수술 건수 5만례를 달성해 인증패를 받았다. 또 고가의 스마일수술 장비인 비주맥스(VISUMAX)를 지금까지 총 5대를 구입, 노후화된 2대는 폐기 후 남은 3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로써 스마일수술 장비 3대 운영은 호남 지역 안과 중 신세계안과가 유일하다.

김재봉 대표원장은 "스마일 수술은 미세한 절개를 통해 수술해야 하는 만큼 의료진의 난이도가 많이 요구되는 수술"이라며 "의료진의 숙련도 및 첨단 장비 보유 여부, 수술 후 사후관리까지 철저한지 등을 고려해 안과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 조선대병원·전남대병원 '약물이상반응관리 공동 심포지엄' 성료

조선대병원(병원장 김경중) 지역의약품안전센터가 최근 전남대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와 함께 '약물이상반응관리 공동심포지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전국 지방의료원 의사, 간호사, 약사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화상 회의 플랫폼 '줌'으로 진행했다.

심포지엄 좌장은 조선대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희정 교수(종양혈액내과)가 맡았으며, 강의는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제도(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허지영 대리) ▲중증피부이상반응(전남대병원 알레르기내과 유지은 교수) ▲표적치료제 및 면역항암제의 이상반응(조선대병원 중앙혈액내과 이슬비 교수)

▲COVID-19 백신 이상반응(전남대병원 알레르기내과 심다운 교수) 등으로 이뤄졌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약물이상반응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공공보건으로 종사자 역할을 강화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 성인 암 생존자,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 높아

성인 암 생존자는 심부전, 뇌졸중 등 심뇌혈관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존스 홉킨스대학 의대 심장-종양 임상 로베르타 플로리도 교수 연구팀이 1987년에 시작된 '지역사회 동맥경화 위험 연구' 참가자 1만2414명(평균연령 54세)의 2020년까지의 기록을 분석한 결과가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미국 과학진흥 협회(AAAS)의 과학 뉴스 사이트 유레크얼러트(EurekaAlert)가 최근 보도했다.

이들은 55%가 여성, 25%가 흑인이었고 3250명이 암 진단을 받았다.

전체적으로 암 생존자는 일반인보다 심뇌혈관 질환 위험이 4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특히 심부전 발생률은 52%, 뇌졸중 발생률은 22% 높았다.

심부전은 심장의 구조 또는 기능 이상으로 혈액

을 온몸에 펌프질해 내보내는 심장 좌심실 기능에 문제가 발생, 체내의 모든 기관과 조직에 대한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는 질환이다.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 등이 위험요인이다.

연구팀은 이러한 위험이 암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봤다. 그 결과 유방암, 폐암, 대장암, 혈액암, 임파선암은 심뇌혈관 질환 위험과 상당한 연관이 있지만 전립선암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항암 치료가 심장에 미치는 독성 때문일 것으로 연구팀은 추측했다.

특히 이런 유형의 암은 항암 화학요법과 흉부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게 되는데 이것이 심장을 손상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지적했다. 이에 비해 전립선암은 적극적 추적 감시(active surveillance)와 국소 치료 등 심장 독성이 없는 방법으로 관리하는 것이 보통이다. /연합뉴스

## 음주 후 안면홍조 고혈압 위험

술을 마신 후 고혈압 증상이 나타나면 고혈압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의료경영학과 장석용 교수 연구팀은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참여한 11만 8129명(남 5만1047명, 여 6만7082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알코올성 안면홍조와 고혈압 사이에 이런 연관성이 관찰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임상 고혈압 저널'(The Journal of Clinical Hypertension) 최근호에 발표됐다.

술의 주성분인 에탄올은 체내에서 알코올 분해효소에 의해 아세트알데하이드, 아세트산으로 바뀌는 대사 과정을 거친다. 이런 대사 과정 중 분해효소의 활성이 떨어지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체내에 축적되고 안면홍조로 이어진다. /연합뉴스



전남대병원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전남대병원(병원장 안영근)이 최근 아동학대 신고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예방 캠페인을 개최했다. 울타리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의료진과 보호자, 내방객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유형 및 발견시 신고 방법 등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으며, 아동학대 예방 리플렛과 아동용 거스터 백, 발레티치용 필피, 손소독티슈 등 홍보물품을 배포하기도 했다. <전남대병원 제공>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